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사드 보복' 후 6년 만에 완전 허용



2018년 4월 경복궁 방문한 중국 단체관광객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 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본격화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 빅장도 완전히 풀리게 됐다.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

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여유부는 "중국 공민(국민)의 해외

단체여행과 관련한 여행사 업무를 시범적

으로 재개한 뒤 여행시장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게 운영돼 여행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로 중국인의 단체여행이 가능해진 국가에는 한국·일본·미얀마·튀르

키예·인도 등 아시아 12개국, 미국·멕시

코 등 북중미 8개국, 콜롬비아·페루 등 남미 6개국이 포함됐다.

또 독일·폴란드·스웨덴 등 유럽 27개국과 호주·파푸아뉴기니 등 오세아니아 7개국, 알제리·튀니지·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18개국도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됐다.

중국은 앞서 올해 1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 빅장을 풀었고, 3월에는 네덜란드, 베트남, 이란, 요르단,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 40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여행을 추가로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일본 등은 1·2차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중국 정부의 발표로 한국행 단체관광은 6년여 만에 자유화됐다.

앞서 중국은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진행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 했다.

이 조치가 '명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여행사들의 단체 상품 판매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객은 뚝 끊어졌다.

그해 12월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단체관광이 다시 시작돼 2018년엔 상하이 시와 장쑤성, 베이징시, 산동성 등 중국 내 6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한국 단체관광이 풀렸고, 같은 해 11월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등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단체관광이 다시 일부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일본 등은 1·2차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중국 정부의 발표로 한국행 단체관광은 6년여 만에 자유화됐다.

상황이 재차 바뀐 것은 코로나19 사태

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이다. 중국은 이 시

점부터 접경 지역 육로 봉쇄와 외국인 여행비자 발급 중단, 자국민 해외여행 전면 금지 등 조치를 유지해왔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자국민 단체관광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중국 외교당국은 단체관광 재개 발표에 앞서 전날 한국 외교부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이 중국 여행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오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행 비자를 발급할 때 지문을 제취하던 절차를 상무(M)·여행(L)·친척방문(Q)·경유(G)·승무(C) 비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 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1년 1월부터 모든 중국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제취해왔다.

/ 박민준 기자

SPC 계열 성남 샤니공장 끼임 사고 50대 피해자 결국 숨져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호흡·맥박 회복했으나 이를 만에 사망…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SPC의 계열사인 샤니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기계를 잘못 조작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를 행사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A씨가 사고 뒤인 이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

했다. A씨는 20일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옮겨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위쪽에 있던 다른 근로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자책감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경찰 조사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심리 안정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 신희준 기자

이재명, '백현동 의혹' 17일 검출석…“없는죄 씌우는건 국가폭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육조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

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다. 이 대표는 이어 "역사와 국민이 엄중

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1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며 "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각각 받았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대응에 대한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대표께서 밝힌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WeConnectScienc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마음의 과학이다

지구의 내일을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말자
과학으로 지구의 내일을 구하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얼굴 드러낸 최원종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반성문 쓰겠다”

모자 마스크 없이 포토라인 지나…고개 숙인 채 “사망 피해자에 애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맨얼굴을 드러낸 채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원종은 이날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 차로 향했다.

최근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 촬영·공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있는 것을 의식한 듯 경찰은 경찰서 1층 로비에서부터 현관문을 지나 호송차로 향하는 최원종의 동선을 비교적 길게 공개했다.

최원종은 범행에 따른 죄책감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검찰 송치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 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반성문 제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도 범행의 이유로 밝힌 ‘스토킹 집단’에 대해 재차 언급하는 등 여전히 피해망상 증세가 있는 모

습을 보였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간 략히 말하자면 제가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며 “집 주변(서현역 등)에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범행 했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

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뇌사 상태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59분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6분 만인 오후 6시 5분 최원종을 서현역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

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이후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최원종의 범행을 신림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원종이 벌인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7일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최원종이 신상 공개를 위해 필요로 한 강용석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발언은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는 구체적 근거나 자료가 아닌, 제보자의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올해 3월 법정 앞에서 질문 답하는 강용석

‘조국 정경유착’ 주장한 강용석,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허위 사실에 기반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크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작년 10월 기소된 강씨는 법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현수 기자

권의위, ‘철근누락’에 LH 등 공공주택사업 부패 집중신고 접수

10월 8일까지 방문·우편·인터넷 접수…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김홍일 권의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접견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관련해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접수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

택’ 관련 사업이다.

이에 따라 ▲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 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같은 접종 신고 접수는 지난 8일 김홍일 권의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만나 협의한 뒤 나왔다.

김 위원장과 원 장관은 당시 만남에서 최근 무량판 공사 부실시공 등을 계기로 LH 공공주택사업에서 드러난 전관 특혜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권의위는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증

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권의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으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권리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 중에서도 기관 내부 공익신고자는 권리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활용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권의위는 접종 신고 기간에 받은 신고 내용은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 이준호 기자

‘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첫 재판서 아동매매 혐의 부인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문서 위조 관련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동매매 및 아동매매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변행에 가담한 A씨 남편 등 2명도 혐의를 일부만 시인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한 미혼모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

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기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불öz졌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 박소희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김현숙 경질’에 선긋는 여권…“잼버리 준비, 전북도가 주도”



6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부안군 잼버리장 내 프레스센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권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질질론에 선을 긋고 있다.

잼버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대로 그간 행사 집행을 맡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사를 주관한 전라북도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이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

고위 관계자 “재정·권한 다 넘겨주고 도왔는데 문제터지니 중앙정부에 책임지라 해”

“전북도 책임 자각해야 시시비비 가려질 것”…대회 종료 직후부터 대대적 감찰 전망

과 다르다”라고도 했다.

여권의 인식은 여가부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으로 잼버리를 주관하기는 역부족이었으며, 오히려

전라북도에 모든 준비 역량이 집중된 상태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여가부 책임론을 사실상 현 정부 책임론으로 치환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지역의 민주당 ‘토착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파행 원인을 숨기려 한다는 상황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하고 토지 규제 해제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는 게 대통령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전라북도 측으로부터 잼버리 예산 6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고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주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온갖 권한을 다 넘겨 달라 요구하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가 심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정부는 잼버리가 오는 11일 서울월드 컨벤션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린 직후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 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등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잼버리 대회장을 새만금으로 정하게 된 과정부터 막대한 관련 예산 사용 내역까지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일부는 강제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사가

전북도 ‘땡볕에 잼버리 지원업무 동원’

공무원에 “밥값 내라”



잼버리 동원 전북도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도시락

탈한 마음”이라며 “식비를 내는 것은 돈이 많지 않고, 큰 문제도 아니지만 이런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식비를 지급해준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며

“우리 지역 행사라 무더위에도 열심히 일했는데 식비를 따로 걷는다니 조금 씁쓸합니다.”

운영진자가 속출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에 지원 업무를 나간 공무원들에게 전북도가 식비를 걷어 원성을 사고 있다.

전북도 차지행정과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장에서 전원 철수한 다음 날인 지난 9일 지원 업무를 마친 공무원들에게 식비를 청구하는 공지를 문자메시지로 돌렸다. 이 공지에는 ‘잼버리 관련 시설점검 해주느라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이 많았다. 부담을 주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동원된 직원들 식비

를 각 부서에서 걷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식비는 1인당 1만2천원이며 부서별로 참여 인원에 따라 식비를 계산해 담당자 계좌로 송금도록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소속 공무원은 “조반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사이고, 또 더위에 고생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쓰러워 기꺼운 마음으로 현장에 일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하니 허고 덜붙였다.

/ 양희성 기자

국세청, 불공정·민생탈세 집중조사…재산은닉 분석 확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세무조사 건수는 축소 기조 유지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인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한다.

근로·자녀장려금과 배달 라이더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을 추석 전 목표로 조사 지급하는 등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천600건까지 줄이는 등 기준의 축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천8건, 2021년 1만4천454건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조사 관련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조와는 별개로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산업 및 가상자산 활용 탈세 등을 지목했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 규금속 거래 시장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의혹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도 시행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변칙적인 부동산 단기 양도 등 악의적인 은닉에 대한 기획분석도 확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진수도 강화한다.

보험상품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새로운 은닉 유형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회계 부정 등 혐의가 있는 공의법인의 사후 검증을 강화해 혐의가 확인되면 3년 간 개별 검증을 하기로 했다. 공의법인의 특징에 맞는 공의법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도 전면 가동한다.

불법 리베이트 등 주류 관련 법령·고시 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직

위반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5천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 사건은 대부분 영세납세자인 점을 고려해 전담반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법납세자 포상 제도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훈격을 상향하고 납부세액보다는 기업의 재기 노력·사회공헌 등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원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본청 법인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 기업 지원 추진단을 꾸려 수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주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직

접 지원도 늘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석 전까지 되돌려 줄 방침이다.

/ 심은호 기자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하고 있다.

태풍에 잼버리 실내프로그램 전환…공연 관람·기업체 견학

정부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한반도에 태풍 ‘카누’가 상륙함에 따라 8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잼버리 활동을 실내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연·전시 관람, 실내 체육활동, 첨단산업 현장 견학이 마련됐다. 공연과 전시로는 다양한 스니커즈 신발을 주제로 한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 전시(서울 세종문화회관), 오케스트라 공연(경기 수원), 국립중앙과학관(대전)·국립현대미술관(충북 청주) 전시, 국악 공연(전주 덕진예술관) 등이 있다.

공연 태권도(충남 아산), 클라이밍(전북 완주), 태권도 웰빙체조(전북 무주) 등 체육 활동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스카우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

천), 셀트리온(인천), SK하이닉스(경기 이천) 등을 방문해 첨단 산업 현장을 둘러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스카우트 대원들의 실내 활동이 진행되는 시설을 찾아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김강우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모두가 행복을 바라보는 신한카드 상생금융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

소상공인 사업 Life-Cycle별로 맞춤 분석/지원 솔루션 제공

- 창업 정보/상권분석 지원
- 매출 증대 마케팅 지원
(프로모션 지원/조기 경보자수 개발, AI기술 사회적 기업 지원)
- 개인사업자 CB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

수해 피해를 함께 나눔

- 피해 회원 카드 대금 청구유예 및 최장 6개월 분할상환 등 지원
- 특별재난지역 내 영세가맹점의 가맹점수료 면제 및 모든 가맹점의 대금입금주기 단축 (0+1일)
- 특별재난지역 내 가전제품 구입지원 (LG전자 대리점)

* 특별재난지역: 세종시·충북 청주시·고성군·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전북 익산시·김제시·죽산면·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13개)

취약 계층과 함께 동행

- 금융 취약계층 유동성 지원
- 취약 차주 채무부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휴·폐업, 질병·상해 등의 차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에 문의 바랍니다.

준법감시 심의일 제20230803-Evn-001호 (2023.08.03~2024.08.02)

1Lead by 신한카드

민주 “잼버리 참사”, 전 정부 탓 후안무치…尹, 사과해야”

16일 행안위·25일 여가위서 이상민·김현숙에 파행 책임 추궁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 대회의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며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 탓을 하는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에게 설거지시키는 책임전가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며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 만들 궁리가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질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송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도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행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 수석부대표는 “상황이 이런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 정부는 자ها자찬, 여당은 전 정부와 야당 탓만 하고 반성과 사과는 없다”며 “반복되는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의원은 “민주당은 1년 전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열악한 준비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자신만만해했다”며 “이번 잼버리 참사는 윤석열 정부

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면 왜 부끄러움과 미안함은 국민들의 뜻이어야 하느냐”며 “백화점과 K-팝을 보여주고 싶어서 잼버리를 개최한 거냐”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데 대해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기승전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염치가 없다”며 “석고대죄하기는커녕 자랑하고 있다.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저런 ‘자뻑’은 할 수 없다”며 “정신 승리로는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잼버리 대회의 유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책임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5일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가 각각 예정돼 있다. / 이주승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정부 “日오염수 교차분석 시료 바꿔치기?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

KINS 배송 시료에 IAEA 라벨
부착·변조방지 테이프 봉인 확인

를 보내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시료가 작년 3월 IAEA 직원 관찰 하에 채취돼 변조 방지 테이프로 밀봉됐으며 작년 8~10월 4개국의 실험실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배송된 시료도 IAEA 로고가 적힌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고, 변조 방지 테이프로 봉인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노컷뉴스는 당시 시료 채취 후 배달에 5개월이 걸린 것을 두고 ‘시료를 담은 병을 바꿔치기하느라 그렇게 긴 시간을 끈 것은 아닌가’라고 보도했다.

박 차장은 “보도에서처럼 시료를 담은 병을 바꿔치기하느라 긴 시간이 걸렸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전하는 글에서는 추측과 상상에 기반한 주장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적인 성격의 보도에 추정이 가미된다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쟁쟁민 기자

당정 “수출금융 지원 규모 22조 늘려 63조원으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원에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천억원,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천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해 수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

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서 필요한 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기

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해외 프로젝트 페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소 3천억원, 금리는 최대 1.5%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노승만 기자

김기현 “잼버리 끝나면 여가부·전북지사 뭐했나 쟁겨볼 것”

“여가부 부족함 부정할 수 없는 사실…지자체도 크루즈 여행 등 흥청망청,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소재 논쟁과 관련, 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역대 전북도지사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세계잼버리 대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 가운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흡집내기에만 혈안이고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앙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여가부의 부족함

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그와 동시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내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쟁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전북도와 여가부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원

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세계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고 한다”며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와인축제까지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이런 방만한 재정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송유영 기자

정부, 김정은 전쟁 언급하며 서울 지목에 “한미훈련 대응 위협”

당국자 “北 전쟁 준비할수록 한미 학장억제·압도적 대응 직면”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지도상에서 서울 등을 가리키며 ‘전쟁 준비’를 언급한 것은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는 위협 메시지의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공개보도와 관련, “8월 중 곧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나름의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지도에서 서울 등을 가리킨 데 대해 “아무래도 위협적인 행동으로 남쪽에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공세적 전쟁 준비를 언급한 데 대해선 “북한이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며 무장장비 대량생산을 운운하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전쟁 준비, 무력 증강에 나설 수록 더욱 강력한 한미의 학장억제와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안보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부족한 재화를 헛된 무력전쟁이나 열병식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돌보는 데 쓰라”고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9·9절)에 ‘민간무력 열병식’을 예고

한 데 대해선 이례적이라고 봤다. 북한이 열병식을 사전 예고한 적이 없었던 데다 1년에 세 차례나 열병식을 개최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월8일 건군절 75주년과 지난 달 27일 이른바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계기로 열병식을 한 바 있다.

북한은 2021년 9·9절에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없이 재래식 무기가 동원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조규현 기자

국민건강 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금 시작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금!

- 혼자하는 금연보다 금연성공률 6배 UP!
- 금연치료 완료하면 진료비도 전액 환급!

금연치료지원 상담전화 1577-1000

관련App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병·의원 찾기

금연치료 전문가인 의사선생님께 진료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처방

이수조건 충족시 본인 부담금 전액 환급

보건복지부 **hi-well** **국민건강보험**

검찰, '학동 봉괴참사' 브로커 문홍식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재개발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홍식

만월을 받았고, 문씨 단독으로 7억원을 한 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다원이엔씨(석면 철거)·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봤다.

문씨는 학동 봉괴참사가 발생한 직후 해외 도피했다가 귀국해 자수,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고,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학동 철거건물 봉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쳤다.

검찰은 문씨가 이씨와 함께 5억9천

/ 송진영 기자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1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혐의…법원 "모두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정유찬 기자

8초만에 지웠지만…당근마켓 '살인예고' 중국인 구속송치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이를 날 체포됐다. 경찰은 왕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를 수색했으나 칼부림에 쓰려고 준비했다고 볼 만한 흥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왕씨는 검거 당시부터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 광도훈 기자

검찰,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기소



조국 딸 조민

속기소 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장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장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 강희수 기자

롯데타워 72층 맨손등반 영국인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서울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른 영국인 고종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24)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킹-톰프슨은 지난 6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해 건물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초 약식기소됐다.

그는 당시 오전 5시께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오전 7시50분께 보안요원이 발견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

고했다. 롯데물산은 건물 외벽 유지·관리 장비를 내려보내 72층에서 그를 태웠다. 그는 배연 설비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킹-톰프슨은 빌딩 꼭대기나 절벽에서 오른 뒤 낙하산을 타고 활강하는 '베이스 점핑' 목적으로 등반 사흘 전 입국했다. 경찰에는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 황순호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층간소음 주장하며 윗집 앞서 칼날 간 20대 영장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계숙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2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여)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전날까지 인천 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윗집에 4차례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 딸은 지난 3일 "어머니가 사는 빌라에서 아래 집 이웃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중식도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딸이 현관문 인근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B씨에게는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CCTV 영상에는 주로 새벽 시간에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종식도 칼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비해 전날 A씨를 검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긴급 체포했다. / 신민준 기자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유커들이 돌아온다…여행·호텔·면세업계 기대감 ‘고조’

10월 中 국경절 연휴 계기 본격 재개 전망…관련업계 “회복 신호탄”



지난 5월 1일 오후 3년 여 만에 재개된 제주~베이징 직항노선 항공편을 타고 온 중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제주관광공사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여행업계를 비롯해 항공, 호텔, 면세 업계 등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위 ‘유커’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은 한때 방한 인원이 연 800만명을 넘기며 전체 방한 관광객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1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중국 관광객은 54만6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26.7% 증가했다. 코로나 기간에는 2020년 68만6천명, 2021년 17만명, 지난해 22만7천명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방한 중국 관광객은 2016년(806만8천명)에 800만명이 넘었다. 이는 그해 전체 외래 방문객의 46.8%에 달하는 수치다.

그리다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그해 중국 관광객은 416만9천명으로 거의 ‘반토막’ 났지만, 2018년 479만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602만3천명)에는 600만명 선을 회복했다.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으로 유커들이 대거 다시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당장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 여행사들은 유커 방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국내 여행시장은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에 비해 인바운드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었다”며 “인바운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 단체여행이 재개되면 아웃바운드에 이어 인바운드 정상화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10월 초 중국의 국경절 연휴 대목이 예정돼 있어 중국 관광객의 한국 단체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단체여행이 허용되면

서 한국과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편도 더 증편될 것으로 보여 항공업계의 밤 뻔한 움직임도 예상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선 중 리오포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가장 회복이 느렸던 노선이 중국인데, 한국 단체 여행이 허용된다면 중국 노선에서 상반기 대비 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선 정상화의 신호

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이며, 그간 큰 회복이 보이지 않았던 중화권 노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홍콩과 산동반도 등의 중국 노선 재취항 타이밍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호텔·면세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좋은 일로 환영한다”며 “코로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변화)을 맞은 가운데 날개를 다는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실적 절벽을 경험한 면세업계는 ‘큰손’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사업자의 매장을 찾은 외국인 수는 156만3천46명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2천1만6천150명)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액도 20조8천129억원에서 16조3천901억원으로 21.3% 급감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로 개점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중국계 ‘다이궁’(보따리상)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재고를 떠안겼다. 재고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업계에서는 엔데믹 이후 국내외 여객 수요가 증가하며 업황 회복의 기대감이 부푸는 상황에서 한한령 해제로 유커까지 돌아오면 실적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를 겪으며 여행사, 호텔, 면세점 업계는 실적 부진을 겪으며 인원을 줄였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서비스를 점검하는 세넥스에너지 직원들

포스코인터 자회사 세넥스에너지, 호주 천연가스 장기 공급계약

호주 7개사에 2025년부터 10년간 천연가스 공급

포스코인터내셔널 자회사인 호주 천연가스 기업 세넥스에너지가 호주 7개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세넥스에너지는 최근 호주 최대 전력 생산업체 AGL을 비롯해 블루스코프, 리버티스틸, 오로라 등과 약 133페타줄(국제에너지 측정 단위)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계약 7건을 체결했다.

천연가스 133페타줄은 액화천연가스(LNG) 약 25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호주 동부지역 연간 가스 수요의 25% 수준이다. 공급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부터 최대 10년간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계약으로 세넥스에너지가 10년간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장기 수의 구조를 확보하고, 그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전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늘어나는 천연가스 수요에 맞춰 파트너사인 핸콕과 함께 세넥스에너지에 3억 호주달러(약 2천600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가스 처리 시설 증설에 나섰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 내 아틀라스와 로마노스 가스전의 가스 처리 시설 증설이 완료되면 2025년 말 세넥스에너지의 생산 능력은 현재의 3배 수준인 60페타줄까지 확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생산된 천연가스 중 일부를 LNG로 전환해 최대 약 40만t 까지 점진적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4월 호주 동부 2개의 육상 가스전을 운영 중인 세넥스에너지 지분 50.1%를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세넥스에너지는 1984년 설립 이후 호주 주요 천연가스 생산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

/ 진형준 기자

아직도 주유할 때 지갑 꺼내세요?

e+ energy plus 앱 다운받고 바로주유 하세요

앱 바코드만으로 주유, 결제, 할인, 적립까지 한 번에 끝!

1. 에너지플러스 앱 다운로드
2. 비로주유 결제
3. 결제/할인/적립 수단 미리 등록
4. 멤버 카드 지갑 없이 주유 가능
5. 5% 이상 주유하면 할인쿠폰까지

에너지플러스 앱은 GS 칼텍스가 제공하는 Mobility service를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채널로서 고객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중 국제여객선, 내일 여객운송 재개…3년 7개월만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 오후 여객선 뉴그랜드피스호가 중국 위해항에서 여객 100여명을 태우고 12일 오전 평택항으로 입항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중 국제여객선은 화물만 운송해왔으나, 3년 7개월 만에 여객 운송이 재개된다.

평택~위해 항로 외에 중국 출발 기준 11일 인천~청도, 13일 평택~연태, 인천~위해 항로에서 여객 운송이 진행된다.

한중 국제여객항로는 15개로, 여객 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명이 이 항로를 이용했다.

해수부는 양국의 방역 정책 완화와 여객 수요를 고려해 지난 3월 20일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을 정상화하기로 했고, 각 선사는 승무원 채용, 선실 정비 등을 준비해왔다.

해수부는 다른 항로로도 여객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중국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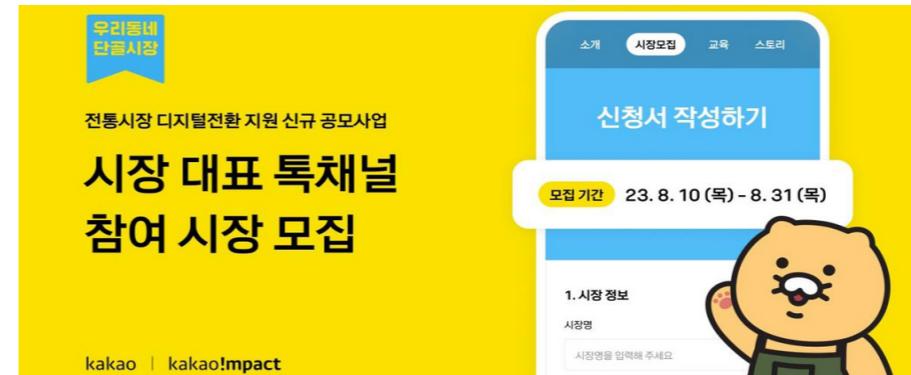


여객선 뉴그랜드피스호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한중 여객운송 재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이 우호 관계를 다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제여객선과 터미널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여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카카오, 하반기 특채널 지원사업 참여 전통시장 모집



카카오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카카오인베스트·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식교육플랫폼 MKYU와 올해 하반기 ‘시장 대표 특채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을 모집한다.

카카오는 선정된 시장에 6주간의 디지털 교육과 특채널 운영에 필요한 무상캐시 300만원, 특채널 활성화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물과 응원 키

트도 제공한다.

신청은 ‘우리동네 단골시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심사를 통해 75곳의 참여 시장을 선정하고, 10월 중 현장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현

재까지 4만7천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142억원 규모의 특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를 포함하면 8만명의 소상공인에게 3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황민성 기자

CJ제일제당, 유망 한식 세프 육성 ‘팝업 레스토랑’ 운영

CJ제일제당은 17일부터 유망 한식 세프 육성을 위해 ‘퀴진케이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퀴진케이 팝업 레스토랑은 세프들이 한식을 주제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강남구에 위치한 CJ제일제당의 혁신허브 ‘이노플레이’에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은 자사가 선발한 젊은 한식 세프들이 메뉴 개발과 고객 응대, 식당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고 나아가 한식 오너 세프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할 참가자를 공개 모집해 최대 3개월간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젊은 세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한식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K-푸드 세계화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희수 기자

서울시 잼버리 3천여명 활동 시작…K팝·E스포츠 한류관광도

대학기숙사·민간 연수원에 지원단…오세훈, 홍대·성대서 직접 점검

서울시가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으로 조기 퇴영을 결정한 '새만금 세레스카 우트잼버리' 참가자 3천여명을 받아들여 잼버리 시즌2에 나선다.

숙소를 마련하고 서울의 자연 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8일 정부와 협의해 10개 자치구의 13개 시설에서 9개국 대원과 관계자 3천210여명을 맞이했다.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육군사관학교 등 대학 기숙사 12곳에 3천90명을 수용하고 민간기업 연수원 1곳에 120명의 잠자리를 마련했다. 숙박 기간은 잼버리 폐영일인 12일까지다.

대원들이 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할 수 있고 사위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곳을 우선 제공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여름방학에 비어있는 대학 기숙사를 중심으로 장소를 선정했다.

시설마다 '전담지원단'을 파견해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한다. 지원단장(4급)과 부단장(5급) 관리하에 운영총괄반(10명)과 의료지원반(2명)이 파견돼 24시간 근무하면서 입소자 관리, 물품 및 식사 지원, 문화·관광 프로그램 안내와 의료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모든 숙소에 보건소·시립병원 의료진과 구급차도 배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흥의대와 성균관대 기숙사를 찾아 직접 상태를 점검했다. 식당과 세탁시설 등을 둘러본 오 시장은 기숙사 관계자에게 잼버리 참가자들이



성균관대 기숙사에서 스카우트 대원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머무는 동안 위생·식단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즐길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5만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확충해 스카우트 대원들이 부족함 없이 관광을 즐기게 할 방침이다. 시청 앞 서울광장은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커뮤니티 부스를 운영해 새만금에서 못다 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돋는다.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와대·경복궁·인사동·대학로 등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순환형 셔틀버스도 마련한다. 9~13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강과 남산 등 서울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확대한다. 인왕산과 북악산 트래킹을 신설하고 뚝섬·대치·강

서 인암암벽장에서 암벽등반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한다.

태풍과 폭염을 고려해 실내에서 즐길 행사도 10일부터 운영된다. 서울시는 K팝과 K-뷰티, K-푸드 등 한류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

마포구 합정동 YGX 본사에서는 K팝 댄스 클래스가 열리고 종로구 청진동 롤파크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 팬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K-뷰티의 산실인 아모레퍼시픽 본사 담방, 인사동 '김치 박물관' 김치간을 도슨트와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서울에 체류하는 잼버리 참가단은 숙소에 파견된 요원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잼버리 대원들이 자유 여행도 충분히 즐기도록 지원한다. 서울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보는 서울관광패스(DSP)는

숙소 별로 신청받아 할인 판매한다. 대원들은 5만원(24시간권)~9만원(72시간권) 수준의 패스를 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한강유람선, 서울시티투어 버스도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대원에게 서울관광 가이드북과 지도를 제공한다. 명동·홍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활동하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요원 근무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조정한다.

서울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공예박물관 등 서울 대표 문화시설 9곳은 야간 개장한다. 기존에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시설을 오후 9~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120다산센터 외국어 상담 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를 통해 필요할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외국어 SNS를 통해서도 안내한다. 시는 서울에서 머무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잼버리 대책본부'를 꾸렸다.

시설별 지원인력 배치, 의료 인력 및 물품 확보, 관광·문화체험 헬프데스크 운영 등 행사 종료 시까지 종합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체험 프로그램 장소와 방문시설에는 차지구 보건소 의료인력도 배치해 온열질환 등 참가자들의 건강도 관리한다.

/ 송원기 기자



법원 판단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 재개

'일산대교 무료 통행' 법정 다툼 장기화 전망

지난해 11월 1심 판결 뒤 지난달에야 2심 1차 변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으로 촉발된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일산대교 민간 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2심 재판은 지난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2차 변론은 다음 달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이 해를 넘겨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

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은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9일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 당시 경기도는 인수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산대교 측이 인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간 갈등은 소송이 마무리돼야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나 일산대교 측 모두 소송에서 물러나기 어려운 형국이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내년에도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곽준호 기자

안산시-안산대, 해양레저 분야 청년인력 양성…일자리 연계



보 교류 ▲ 특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 ▲ 각 기관의 이미지 제고 및 해양 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해양레저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실무 중심형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청년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레저스포츠케어과를 둔 안산대는 재활 운동, 레저와 스포츠 종목 지도 등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가 서해안 해양 레저산업 분야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안산대와 함께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기자



국지도 82호선 대체 도로는 2042년이 되면 기존 노선의 일일 통행량 4만여대를 대체·분산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LH 담당자를 만나 이들 3개 노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국가산단 연계 도로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 노승만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은행 이야기

농촌 독거 어르신 맞벌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나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일부 전화 서비스로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은행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용인시, 국토부에 '반도체 국가산단'

주변 도로망 확충 건의

경기 용인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조사설계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건의한 연계 도로망은 ▲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청인구 남사 북리~이동 목리 구간(15km, 4차로 신설) ▲ 국도 45호선 청인구 이동 송전~청인 남동 구간(8.7km, 4차로 → 8차로 확장) ▲ 지방도 321호선 청인구 남사 봉명~남사 아곡 구간(5.2km, 2차로 → 4차로 확장) 등 3개 노선이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망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반도체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청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교통 영향 사전 검토를 위해 연계 도로망 구축 용역을 진행, 국가산단 주변 주요 도로의 향후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확충이 필요한 노선을 도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도 45호선 이동 송전~청인 남동 구간은 현재에도 차량 정체가 심각한 구간으로, 산단 조성이 완료되는 2042년에는 일일 차량 통행량이 2022년 대비 28.4%(7만811대→9만973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방도 321호선 남사 봉명~남사 아곡 구간은 83.5%(8천893대→1만6천319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노승만 기자

원자력·해양 전문가 “후쿠시마 오염수 왜곡 정보 확산”

“국내외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과학적 검증 국민 불안 해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원자력·해양 전문가가 논의하는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부산시수협은 8일 오후 부산시수협 대회의실에서 ‘원전 오염수 논란이 남긴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낸 보고서의 의미와 세간에 떠도는 왜곡된 정보에 관해 설명했다.

백원필 학회장은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던 이들



원전 오염수 논란이 남긴 영향과 대응 방안 토론회

은 방사선에 대한 공포를 확산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IAEA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낸다고 알려졌는데 미국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중국과 일본이다. 더구나 일본이 내는 분담금은 중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IAEA가 낸 보고서에는 (방류의 영

향을 받는) 태평양 연안국의 의견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ALPS는 거대한 정수기로 방류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정수를 반복

한다”며 “성능이 나쁘면 두 번, 성능이 좋으면 한번 정수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프스의 성능이 좋고 나쁜 것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도형 원장은 “물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우려할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며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키나와, 제주 등 국외 해역에 있는 해수를 중심으로 채취해 수질을 측정한다”며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촘촘한 방어망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강석호 기자



울산축협 단협 해지 규탄 기자회견

부울경 협동조합노조

“울산축협, 타임오프 빌미로 단협 일방해지”

울산축산농협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울산축협에 자체 보관하다가 총회나 회계감사 시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측 “노사 신뢰 무너졌다 판단

노조 없애거나 통제 의도 없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축협이 근로시간 면제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더니 급기야 6월에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울산축협 노사가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은 타임오프 사용 시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측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일방적인 근태관리를 시도하고 근로시간 면제 사용 내용을 요구하더니 지난 3월에는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면제 사용 내용은 노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울산축협은 정당한 이유 없는 노조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축협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는 사규에 의해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 내용을 요구한 것”이라며 “단협 해지는 전반적인 노사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를 없애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노무사 조언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성훈 기자



울산 124번 수소버스

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를 말한다. 그린수소 연료로 버스를 운행하면 사실상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

/ 한은정 기자

삼성생명

‘그린수소로 달린다’ 제주서 수소 연료 버스 9대 내달 운행

“조만간 순도 기준 개선 후 수소 생산 과정 완료”

제주에서 다음 달부터 그린수소를 연료로 한 버스가 달린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카본프리아일랜드(CFI) 에너지미래관 부지에서 3㎿급 그린수소를 생산해 다음 달부터 이를 연료로 한 수소 버스 9대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린수소는 6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만, 그린수소를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수분 함량이 발생해 순도 99.99%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수분 함량 문제를 조만간 개선을 완료하고 순도 검사를 거쳐 그린

수소 생산 과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한 수소로, 생산과

24시간 아이 돌보는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 확대 운영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 일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야간과 주말에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현재 창원, 김해, 밀양, 거제, 남해, 하동 6개 시·군에서 7개 소가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김해, 양산, 함안에 6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8개 시·군 13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5세 이하 내·외국인 영유아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시간당 1천원씩 1시간 단위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열린 어린이집은 1월 1일, 설·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 이용일 하루 전까지 기관에 전화로 예약



하거나 긴급한 경우 당일 예약도 가능하며 월 90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올해 13개소로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을 실시해 추가 수요가 있으면 사업 운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동준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강우 기자

‘강제추행’ 징역형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부인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

인했다. 오 군수 측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정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있었으나 전혀 다른 취지였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경남 의령군 한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10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혐의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군수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날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추가 증인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 임종현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안세영 선수가 전해드릴 좋은 소식

2023년 월드투어 대회 총 7번 우승으로
마침내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삼성생명 안세영 선수

8월에 또 한 번 뛸려줄
기분 좋은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2023 덴마크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8/21~27]
우승을 기원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안세영 선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충남 등 5개 시·도 머리 맞대

충남서 간담회 열려…기본공급 약관 개정 등 과제 넘어야

충남도와 부산·인천·강원·경북 등 5개 시·도가 실효성 있는 지역 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 시도와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데, 이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역 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충남을 비롯한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전기료 감면 효과 등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역 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위해서는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약관 개정과 산업통상



지난 8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5개 시·도 간담회

자원부의 인기를 받아야 한다.

또 지역별 견해 차이와 사회적 수용성, 도입 방법 등도 해결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은 영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송전용량과 거리에 비례한 권역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석준 기자

“안부 챙겨줘 위안받고 안심돼” 동해시, 우유 배달사업 ‘호평’

강원 동해시가 취약계층 어르신 고독사 예방 및 안부 확인을 위한 우유 배달사업이 호평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심규언 시장과 호용한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이사장, 전창표 헨켈코리아 부사장, 조창웅 동해시니어클럽 관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유배달 업무협약식을 하고 배달을 시작했다.

이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동해시니어클럽 공공이불빨래방 참여 인력이 지난달 24일부터 주 3회, 오전과 오후 조로 나눠 구역별로 멸균우유 2~3개씩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배달하고 있다.

배달 시 우유가 쓰여있는 가정의 경우 인적 사항을 시에 보고하면 각 행정복지



동해시, 어르신 안부 확인 우유 배달사업

센터 맞춤형복지팀이 대상자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 어르신 5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 신지호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합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작 계약기간 만료 전 환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월금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 연 0.18%, 3억 이상 :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도록 4개 시도와 협력할 방침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있다. 지난해 기준 충남의 발전량은 10만7천812GWh(기가와트시)로 국내 총발전량 59만4천392GWh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전력 생산량의 47%인 5만 259GWh만 도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기준 7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이석준 기자



이동형 이음5G DNA+드론 플랫폼 개념도

공주에 5G 적용 상공망 통신시스템 구축 “드론도시 육성 도움”

충남 공주에 5G 이동통신을 드론 통신에 적용한 상공망 통신시스템 시험시설(테스트 배드)이 구축된다.

9일 공주시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드론 서비스 기업 가이온은 금강 공주보 인근에 드론 데이터 획득부터 실시간 전송, 인공지능(AI) 분석까지 가능한 DNA+드론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드론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험시설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 사업비는 18억원이다.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음5G)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기업·기관이 건물이나 공장 등에 필요한 5G 주파수를 할당받아 현장에 활용하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서비스다.

드론은 조종사의 가시권 범위 내에서 만 비행이 가능하다 보니 비행 시 통신 성능 저하, 활영 영상 전송용량 한계, 통신 음영지역 발생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에서나 드론 통신

이 가능한 기술 개발이 진행돼 왔다. 이음5G를 활용한 드론 전용 5G 상공망 통신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시스템은 공중 지향 안테나로 드론 비행 고도에 최적화된 통신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드론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업 링크 용량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5G 코어 시스템에 DNA+드론 플랫폼을 전진 배치해 더 빠른 지능화 드론 서비스도 가능하다.

최원철 시장은 “이 사업은 시가 역점 추진하는 드론 특화도시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공항공사, 공주대학교,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11개 기관단체와 협약하고 ‘공주형 드론특화도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 운영 중이다.

/ 최병훈 기자

광주시, 기회 발전 특구 유치 본격화…“광주 모델 개발”

광주시가 정부 새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 발전 특구 유치에 나섰다. 광주시는 8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기회 발전 특구 추진단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

광주시는 정부 동향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특구 계획 수립과 기업 유치 활동을 총괄하는 추진단, 이를 지원할 실무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모 중인 사전 조사 지원사업에 광주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 지역사업평가단을 참여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사전 조사를 하고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기회 발전 특구는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로 개인과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역 균형발전을 추



광주시 기회 발전 특구 추진단

진하는 정책으로 지자체별로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기업

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기회 발전 특구는 기업 유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광주 모델을 개발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 광현주 기자

도민은 잼버리 속앓이하는데 전북도의원들 독도견학가려다 취소

최재 시작되자 ‘없던 일로’
의원 39명중 절반 신청

피행을 빚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전북도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독도로 견학을 떠나려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취소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잼버리의 잇따른 악재로 전북도가 시름 중인 데다 수해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역 상황을 외면하고 견학을 가는 게 적절하나는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에서다.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18명은 오는 1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로 견학을 떠날 예정이었다.



빈 잼버리장 바라보는 시민들

목적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에서 애국의 의지를 다지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피포먼스를 벌이기 위해 서다. 전체 도의원 3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견학 신청을 했다.

경비는 1인당 40만~50만원 가량이 책정됐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가 피행을 빚어 향후 각종 감사와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 시기에 견학을 계획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청 한 공무원은 “도의원들이 쟁여야 할 현안이 산적한 이런 상황에서 민생은 뒷전인 처사”라며 “오늘도 공무원들은 잼버리 현장으로 쓰레기 주우러 간다”고 지적했다.

견학을 주도한 A 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이번 광복절에 독도를 못 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전북도의회라도 가서 독도가 일본 다케시마가 아님을 보여주려고 했다”면서 “당초 22명이 신청했는데 4명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연합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절대 놀려 가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여론이 그렇다면 일정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 조규현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청년 Hy-Five/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측정지원센터
환경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합 ECO Alliance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습니다

SK hynix

템플스테이·태권도·농악...스카우트들, 실내서 한국문화 체험

경기 곳곳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전통무예·전통예절 경험도



10일 오전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네덜란드와 파라과이 스카우트들이 템플스테이 체험을 하고 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캠버리 대회 참가자 중 경기도에 체류 중인 1만5천명과 같은 각국 스카우트는 10일 한반도에 제6호 태풍 카누이 상륙함에 따라 실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했다.

화성 시내 수원대와 장안대 기숙사에서 머무는 네덜란드와 파라과이 스카우트 88명은 이날 오전 조계종 제2교구의 본사인 화성 용주사를 찾아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

잠시나마 한국 불교를 접하고 사찰 지붕 기와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색다른 경험을 한 이들은 점심도 용주사에서 제공하는 밭우공양으로 해결한다.

수원시 전통문화관에는 3개국 77명의 스카우트가 방문해 절하기 등 전통 예절

을 배우고 우리 민족 고유음식인 떡 만들기를 했다.

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 체육관에서는

스카우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오징어게임, 경기과기대 학생과의 축구, 농구

시합이 펼쳐졌다. 다양한 공연도 마련돼

스카우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수원시 경기대 텔레컨벤션센터에서는 수원시립공연단의 무예24기 공연이 열렸다. 무예24기는 조선 정조시대 지상무예

18가지와 마상무예 6가지를 재구성한 24가지 무예이다. 전통 복장의 장수들이 칼과 창을 휘두르고 무술을 선보이자 관객석에서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이밖에 명지대 공연장에서는 풍물놀이와 택견 시범, 국악·클래식 퓨전 연주 공

연이, 평택대 90주년 기념관에서는 평택 농악, 태권도 시범, K팝, 비보잉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날 안성시 농협중앙회 교



농악대 체험하는 캠버리 대원

육원에 체류 중인 스카우트 대원 일부를 도담소로 초청해 발달장애인, 하늘소리 문화예술단과 라온브라스앙상블의 합창, 악기 연주 공연을 제공했다.

지난 8일 캠버리 대원 350여명이 입소한 경기도소방학교에서도 로프 하강, 외줄 타기, 생존수영, 소방헬기 구조시범, 안전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태풍으로 이날 밤까지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원시는 관내에 머무는 스카우트들을 위해 저녁 시간대 비보잉 공연을 준비했다.

스카우트들의 숙소 4곳에 버스킹팀을 2팀씩 보내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간 랙 숙소로 비에서 공연을 펼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에 온 각국의 스카우트들이 수원에서 좋은 기억, 따뜻한 추억을 안고 돌아갈 바란다”고 말했다.

/ 한지혜 기자



‘피지컬:100’ 시즌2 ‘세트 비짓’ 행사

완벽한 몸을 찾아라…광산에서 펼쳐지는 ‘피지컬:100’ 시즌2

“피지컬:100” 시즌2는 지하 광산이라 는 공간을 설정했습니다. 지하 광산이란 공간이 가진 희생과 욕망, 그리고 협동과 경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성에서 모티브를 얻었죠.”

넷플릭스에서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하며 많은 화제를 낳았던 예능 ‘피지컬:100’

이 스케일을 키워 시즌2로 돌아온다. 100명의 참가자가 우승을 향해 경쟁하고 최고의 몸(피지컬)이 무엇인지 찾는다는 형식은 동일하지만, 공간적인 설정과 참가자들의 다양성에서 큰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의 세트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장호기 PD는 “시즌1은 고대 그리스를 콘셉트로 설계했는데, 시즌2는 ‘완벽하게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장 PD의 말처럼 이날 공개된 세트장은 시즌1과 판판이었다. 시즌1 세트장이 곳곳에 대리석을 연상케 하는 밝은 회색 구조물과 녹색 담쟁이 식물을 배치해 퍼르

테는 신전을 연상케 했다면, 시즌2의 세트장에는 구릿빛이 가득했다. 다만 출연자들이 각자의 몸을 본뜬 토르소 등상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탈락하면 망치로 토르소를 부수도록 한 규칙은 유지됐다. 세트장 한쪽에는 최근 촬영에서 부서진 토르소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다.

출연자들의 신체적인 특성이 다양해진 것도 이번 시즌의 특징이다. 시즌2에 출연하는 이들의 체중은 최소 44kg에서 최대 200kg까지 다양하고 30명가량은 전·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라고 한다.

장 PD는 “전·현직 국가대표가 많아서 국제 스포츠 경기를 방불케 한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또 “여성 참가자가 시즌1보다 많아져서 ‘이번엔 여성 참가자가 우승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와 응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공개된 ‘피지컬:100’ 시즌1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2주 연속으로 넷플릭스 시청 시간 1위를 차지했다.

/ 윤희정 기자

박정민, 영화 ‘밀수’ 화면해설 상영회에 시각장애인 초대

배우 박정민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화면해설이 삽입된 영화 ‘밀수’ 상영회를 연다.

10일 한국장애인재단에 따르면 박정민은 오는 17일 서울 롯데시네마 도곡점에서 열리는 ‘밀수’ 화면해설 버전 상영회에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등 100여 명을 초대했다.

박정민은 이번 상영회를 위해 자비로 영화관을 빌렸으며 행사 진행비도 기부했다.

화면해설 영화는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장면을 말로 읽어주는 화면해설과 음성 등 각종 소리



배우 박정민

를 글로 적은 자막해설을 함께 제공한다. 박정민은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소리책) 제작에도 참여해왔다.

재단 관계자는 “박정민 배우가 먼저 연락해 시각장애인분들을 ‘밀수’ 상영

회에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며 “틈틈이 오디오북 제작에 목소리 재능 기부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밀수’에 출연한 또 다른 배우 조인성 역시 시사회에 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과 사회복지사 등을 초청한 바 있다.

‘밀수’는 1970년대 바닷가 도시 군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녀들의 밀수 범죄를 다룬 영화다. 류승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고민시 등이 출연했다.

/ 김해선 기자

전통 가락과 팝의 만남 ‘조선 팝 공연’,

전주서 10월 개최



전북 전주시는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축제인 ‘2023 전주 조선 팝 상설공연’을 10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선 팝은 전통음악을 팝과 혼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전주시가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봄과 여름, 가을에 열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예술인들이 노래,

연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가을 축제는 10월 13일부터 15일

까지 사흘간 도심 곳곳에서 열리며, 총 2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는 300만원의 출연 지원금을 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최희영 기자

디제잉 파티·디너 크루즈 부산 야간관광 프로그램 ‘다채’

부산에서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다양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부산 해운대구 APEC나루공원에서 ‘리버사이드 디제잉 파티’를 개최하고 ‘미드나잇 디너 크루즈’를 시범 운영한다.

서린, 디아, 루시를 비롯한 국내 유명 디제이들이 출연한 가운데 힙합, EDM, 팝, 평크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펼쳐 APEC나루공원을 야외클럽으로 변신시킬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7시, 9시, 10시 APEC나루공원에 있는 해운대 리버크루즈에서 유람선을 타고 도시락을 먹으며 수영장과 해운대 마린시티, 광안대교 등을 둘러보는 디너 크루즈를 운영한다.

/ 박효주 기자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 (갱신형·무배당)

더욱 새로워진 간편패키지 보장보험을 만나보세요!

상담문의 080.363.6363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거주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저지급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미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기준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2755호 (2023-06-27 ~ 2024-06-26)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3-06-029

www.hanwhalife.com

한화생명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고객과 상생하는 금융 신한금융그룹이 있습니다

고객이 어려울 때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상생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신한의 상생금융
신한 꿈도담터 보러가기

손흥민, 브렌트퍼드 상대로 첫 질주…김민재·이강인은 데뷔전



손흥민의 질주

브렌트퍼드 상징은 '꼴벌'…'양봉업자' 손흥민 발끝 주목
프리시즌 긴 시간 소화한 김민재, 개막전서 뮌헨 데뷔 유력
쌍두마차 이탈 가능성 PSG, 새판짜기 불가피…이강인엔 '기회'

트문트에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 '양봉업자'라는 별명으로 불린 적이 있다.

브렌트퍼드 역시 꼴벌을 상징으로 둔 팀이다. 팀 별명은 물론 공식 문양까지 꼴벌이다. 이 팀 응원가에서 등장하던 '꼴벌'이라는 단어가 1890년대에 이에 팀 상징 물로 굳어졌다고 한다.

손흥민이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새 시즌, 오랜만에 양봉업자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흥민의 단짜이자 토트넘의 '주포'인 해리 케인의 출격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케인 이적을 둘러싼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토트넘의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브렌트퍼드에는 한국 축구의 '새내기 중앙수비수' 김지수가 뭉담고 있어 '코리안 더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지수가 프리시즌에 2군과 1군을 오간 터여서 성사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리그1에서는 양 리그의 '절대 1강' 두 팀에서 한국 선수들이 나란히 데뷔전을 치를 전망이다. '챌린저' 김민재가 새 동지를 틀 바이

에른 뮌헨은 13일 오전 열리는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으로 새 시즌을 시작한다. 토마스 투헬 뮌헨 감독은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김민재에게 긴 출전 시간을 준 터라 개막전 선발 출전 가능성은 커 보인다.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이 입단한 파리 생제르맹(PSG)은 13일 오전 4시 로리앙을 상대로 리그1 1라운드를 소화한다.

선발 출전한 르아브르(프랑스)와의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하벽지 부상으로 물러난 이강인은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친선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며 우려를 털어냈다. PSG는 '쌍두마차'였던 키리안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새 시즌에도 팀 공격을 책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네이마르는 PSG와 결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음바페는 계약 연장을 두고 구단과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다. PSG의 공격진 '새 판 짜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로리앙전은 이강인이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갈 중요한 기회다.

/ 최준용 기자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 모습

한국 남자하키, 아시안 챔피언스트로피 4강 진출

한국 남자하키 대표팀이 아시아 상위 6개 나라가 출전한 아시안 챔피언스트로피 대회 4강에 진출했다.

직전 대회인 2021년에 우승한 우리나라 11일 다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결승 진출을 노린다. 이 대회 4강 대진은 한국-말레이시아, 인도-일본으로 정해졌다.

/ 신재우 기자

9연패 끊은 김혜성의 부상 투혼

"부러진 것 아니면 뛰어야죠"

키움 히어로즈 김혜성은 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전에서 4타수 3안타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하며 10-8 승리를 이끌었다.

전날 자신의 타구에 무릎을 맞아 교체됐던 김혜성은 이날 부상 투혼을 펼쳤다.

1-1로 맞선 3회말 무사 2루에서 역전타를 날린 김혜성은 후속 안타 때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2루까지 달렸다. 이후 불넷과 상대 실책 때 훔까지 들어왔다.

6-1로 앞선 4회에는 선두타자 안타를 날려 추가 3득점의 물꼬를 뚫었고, 5회 1사 3루에선 희생 플라이로 10점째를 책임졌다. 롯데가 실책 3개로 자멸하면서 키움은 9연패에서 탈출해 팀 최다 연패 신기록을 작성하는 불명예를 피했다. 특히 팀의 간판 이정후가 지난달 23일 발목 부상으로 빠진 뒤 14경기 11패(2승 1무)를 당한 터라 더욱 반가운 승리다.

경기를 마치고 만난 김혜성은 "다리 가 불편하긴 한데 아예 못 뛸 정도는 아니다"라며 "2군 갈 정도 아니면 뛰어야죠"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는 연패 기간을 돌아보며 "많이 속상했다"면서도 "(팀원끼리) '모두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하자'는 대화를 많이 했다. 그런 생각으로 매 경기 임했다"고 돌아봤다. 절친 이정후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김혜성은 "어제 공에 맞았을 때도 괜찮냐고 연락이 왔었다"면서 "(연패 기간에는) 정후도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고 힘내라고만 말해주더라"고 전했다.

/ 박정훈 기자



'스마일 점퍼' 김혜성

우상혁, 올해 세계육상선수권 우승하면 포상금 1억9천200만원

세계육상연맹 개인 종목 우승 상금 7만달러 책정…대한육상연맹 포상금은 1억원

"맡겨놓은 금메달을 찾아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히며 유럽으로 떠난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용인시청)이 자신의 목표와 한국 육상의 염원대로 2023 부다페스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 포상금 1억9천200만원을 받는다.

세계육상연맹은 10일(한국시간) 2023 세계선수권 포상금 규모를 공개했다.

개인 종목 우승 상금은 7만달러(약 9천 200만원)다. 2위는 3만5천달러(4천600만원), 3위는 2만2천달러(2천900만원)를 받는다.

상금 지급 대상은 상위 8명이다. 4위 1

만6천달러(2천100만원), 5위 1만1천달러(1천450만원), 6위 7천달러(920만원), 7위 6천달러(790만원), 8위 5천달러(660만원)로 상금이 책정됐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 특별 포상금 10만달러(1천3천100만원)를 별도로 챙긴다.

팀을 이뤄 달리는 계주 종목에서는 팀 별로 1위 8만달러(1억500만원), 2위 4만달러(5천250만원), 3위 2만달러(2천600만원), 4위 1만6천달러(2천100만원), 5위 1만2천달러(1천580만원), 6위 8천달러(1천50만원), 7위 6천달러(790만원), 8위 4천달러(526만원)를 받는다.

대한육상연맹도 경기력향상금(포상) 규정에 세계선수권 상금을 명시했다.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면 1억원, 2위에 오르면 5천만원, 3위는 2천만원을 지급한다.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은 19일에 개막한다.

우상혁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오후 5시 35분 남자 높이뛰기 예선을 치르고, 23일 오전 2시 55분에 결선을 벌인다.

우상혁은 유럽으로 출국하기 전 "정말 준비를 잘했다"며 "지난해 유진 대회에서 얻지 못한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이번에

꼭 찾아오겠다. 기분 좋고, 정말 자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우상혁은 이번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우상혁은 '한국 육상 최초 세계선수권 우승'이라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 임성준 기자

SAMJIN 삼진제약

맞다! 게보린 낫다! 게보린

통증은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오한, 발열까지—통증을 빠르고 깔끔하게!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게보린만의 맞춤 케어 솔루션으로 늘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
다양한 통증에도 역시 게보린!



생리통에 더 빠른 케어솔루션
제보린® 소프트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제보린® 클다운 정



근육통 케어 프리미엄 진통제
제보린® 릴랙스

드라마 '정년이'에 김태리·신예은·라미란·문소리 캐스팅



원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태리·신예은·문소리·라미란

배우 김태리, 신예은, 라미란, 문소리가 한 드라마에서 뭉친다. 제작사 앤피오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정년이'의 캐스팅이 확정됐고 오는 9월 촬영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소리 하나 만큼은 타고난 소녀 윤정년이 여성국극단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주인공 윤정년은 김태리가 연기한다. 국극배우가 되기 위해 목포에서 홀로 상경한 판소리 천재 소녀 역이다.

신예은은 노래, 춤, 연기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탄탄한 실력에 집안 배경까지 좋은 허영서 역을 맡았다. 윤정년과 라이벌로서 경쟁을 펼친다. 매란국극단 단장 강소복 역에는 라미란이 나선다. 서늘한 카리스마와 대쪽 같은 성격을 소유한 인물이다.

배우 문소리도 현재 소리꾼이었던 과거를 끝여둔 채 홀로 자식을 키워낸 정년의 엄마 서용례로 특별 출연한다. 내년 중 공개 예정이며, 방영 플랫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이은정 기자

이병헌 주연 '콘크리트 유토피아'

위로 출발…'밀수'는 2위



엄태화 감독의 신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과 함께 뮤승완 감독의 '밀수'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10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개봉일인 전날 23만1천여명의 관객을 모아 1위에 올랐다. 매출액 점유율은 56.4%였다.

'밀수'는 전날 7만7천여명(매출액 점유율 18.7%)을 모으는 데 그쳐 2위로 밀려났다.

지난달 26일 개봉 이후 줄곧 1위를 달려온 이 영화는 14일 만에 정상을 내줬다. '밀수'의 누적 관객 수는 386만4천여명이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은 3만1천여명(7.7%)의 관객을 모아 3위였



송강호 주연 '거미집' 추석 개봉…칸영화제 초청작

송강호 주연의 영화 '거미집'이 다음 달 28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직접 개봉한다고 배급사 바른손이앤이가 10일 밝혔다. 정확한 개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지운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70년대 영화감독 기열(송강호 분)이 걸작을 만들기 위해 촬영을 마친 영화를 다시 짹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코미디다. 송강호를 비롯해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박정수, 장영남 등 쟁쟁한 배우들이 함께했다.

오는 15일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개봉하면 박스오피스 순위는 다시 한번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이 33.4%로 1위에 올라 있다.

/ 김채경 기자

/ 오성준 기자

윤도현, 암 투병 고백…“3년 치료 끝 이를 전 완치”

가수 윤도현이 암 투병 사실을 뒤늦게 고백했다.

윤도현은 10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2021년 암 진단을 받았고 3년간 투병 끝에 이를 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암의 종류나 증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도현은 “2021년 여름 건강검진 후 암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며 “정말 많이 놀랐으나 받아들이고 치료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고 2주간 약물 치료를 했으나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결정 후 한달 좀 안 되게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힘들게 치료했다”며 “이 과정은 2021년부터 2023년 여름까지의 일들”이라고 했다.

윤도현은 “암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앞이 깜깜해졌다”며 “세상 밖으로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 ‘천하의 윤도현이 암이라니’, 팬들은 충격도 받으실 것 같았다. 부모님께 알려드린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제 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를 전 암 3년간의 투병을 마치고 드디어 암세포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태어나 죽음이란 것을 처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혼자 울기도 해보고 참 많은 교훈을 얻었던 시간”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겪어보니 암세포보다 사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위험한 것이라 빠져나가기 어렵기에 (여러분도) 긍정의 마음으



가수 윤도현, 암 투병 고백

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리다”고 적었다.

윤도현은 병원복을 입은 사진을 함께 올리며 “방사선 치료 첫날 완치되면 사진 올리고 기쁜 소식과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 찍어놨는데 올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록밴드 YB를 이끌고 있는 윤도현은 암 투병 중에도 2021년 예능 '싱어게인2'를 비롯해 각종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11년 만에 MBC 라디오 DJ로 복귀해 '4시엔 윤도현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 권준현 기자

아이브, 캠버리 K팝 공연 출연

“대원들과 약속 지킨다”



뉴진스, NCT드림, 마마무 출연

그룹 아이브가 11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출연진에 합류했다고 캠버리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밝혔다.

아이브는 당초 지난 6일 새만금 야영장에서 열릴 K-팝 공연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날짜와 장소 변경으로 명단에서 빠졌다가 출연을 최종 확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아이브가 6일 출연 약속을 지키고자 다른 일정을 조정해 자발적으로 K-팝 콘서트에 출연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가 암도적인 K-팝의 매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K-팝 슈퍼 라이브'에는 뉴진스, NCT드림, 몬스타엑스 유닛 셔누·형원, 마마무, 강다니엘, 있지, 더보이즈,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권은비 등 총 19개 팀이 참여해 150여개국 4만여 스카우트 대원과 만난다.

/ 홍승연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IFT 거창국제연극제 자연·인간·연극 Nature, Humans And Plays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2023. 7. 28. 금 → 8. 11. 금 (15일간)

The 33rd G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수승대 및 거창군 일원

문의: 055-945-8455~6

예매하기: 거창국제연극제
www.kift.or.kr



주최·주관: 거창문화재단

후원: 경상남도

거창군

KB금융그룹 | 국민의 힘 파트너
금융파트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환전에 혜택을 꽉 채웠다

KB스타뱅킹에서 만나는
KB외화머니박스

환율 낮을 때 모아두고 여행갈 때 바로 찾고
환율 우대는 최대 90%까지!
이런 게 KB국민은행의 새로운 환전혜택!



KB외화머니박스

KB외화머니박스는 KB스타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전 서비스입니다



KB외화머니박스 바로가기

1 최대 90% 환율 우대

놀라운 환율 혜택은 기본, 원하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까지!

2 자유로운 보관과 출금

수령점 및 수령일 지정없이 보관, 출금, 되팔기, 선물을 자유롭게!

3 편리한 외화 배달 서비스

환전한 외화 실물도 택배처럼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을 편하게!

*외화 실물 수령 희망 영업점별로 보유 권종이 다를 수 있으나, 필요하신 권종(소액권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업점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된 환전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환전 신청한 금액은 원화로 직접 되밀기 할 수 있으며, 거래 사정의 한계 파실 때 환율(환전 신청시 적용한 환율우대율 적용)이 적용됩니다. • 환전 후 미수령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외화는 예금자보호법 및 이자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 미달러(USD)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외화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 현금을 출금할 경우 외화현금보관수수료(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JPY, EUR: 1.5%/그외 통화 3%) • KB외화머니박스 환전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첫째주 일요일 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